



### ‘국보급 센터’ 서장훈 또다른 도전



#### 통산 1만점 달성 이어 5천 리바운드 목표

‘국보급 센터’ 서장훈(34·KCC·사진)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19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2009 동부프로미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 LG와 홈 경기에서 6점을 넣어 통산 1만점을 넘어서 서장훈은 “5천 리바운드는 누구도 이루기 어려운 기록이다. 은퇴 전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음 이정표를 제시했다.

서장훈은 이날까지 4천97개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어 5천 리바운드까지는 903개를 남기고 있다.

현재 국내 프로농구에서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모두 통산 기록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보’ 서장훈의 거침없는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FA 어떻게

올 시즌 스토브리그 초반의 관심사였던 FA 대어들의 자리 찾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9년 FA 자격선수로 공시된 27명 중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는 11명. 팀의 한국시리즈 2연패의 주역 김재현·이진영(이상 SK), 두산의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이끈 홍성흔·이해찬, 팀 4강의 기쁨이 된 손민한(롯데)·박진만(삼성)을 비롯해 히어로즈의 정성훈 등 어느해보다 올 겨울 FA 시장은 풍성했다.

협상 마감일이었던 19일 말 김재현이 1년간 계약금 2억원과 연봉 5억원 등 총 7억 원에 SK와 재계약하면서 최종 행선지가 결정된 선수는 총 8명이다.

2004년 말 FA 자격을 얻어 LG에서 SK 유니폼을 갈아입었던 김재현은 두 번째 FA계약에서 팀 잔류를 선택했고 ‘범용 유격수’ 박진만도 계약금 6억원, 연봉 6억원 등 총 12억원에 1년 재계약에 합의, 계속해서 삼성 내야를 지키게 됐다. 2004년 말 FA 자격을 얻은 뒤 현대에서 삼성으

## L G 이면 계약 논란 속 ‘대어’ 이진영 낚다

**연봉 3억6천만원 발표 불구 실제 4년간 40억 추정**

**삼성 박진만 12억에 재계약...총 11명 중 8명 확정**

로 자리를 옮겼던 박진만은 지난해보다 33.3%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된다.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도 우여곡절 끝에 롯데 에이스로 남기로 했다.

19일 오전 손민한은 2006년 두산 박명환이 LG로 옮길 때 받았던 투수 최고 대우(4년 40억원)를 요구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협상 마감을 앞두고 벌인 제책 상에서 1년간 계약금 8억원, 연봉 7억원 등 총 15억원에 도장을 찍어 ‘부산 갈매기’ 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최하위의 총액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둑한 돈 바구니를 준비한 LG는 ‘국민외야수’ 이진영을 활적했다.

LG는 20일 자유계약권을 선언한 이진영을 계약금 없이 연봉 3억6천만원에 영입

했다고 발표했다. 이진영이 원 소속구단인 SK의 4년간 총액 35억원의 제안을 거절했던 만큼 LG가 실제 4년간 40억원 이상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번계약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LG로서는 대어를 낚은 셈이다.

LG는 최원호(연봉 2억원)·이종열(연봉 1억 7천만원)·최동수(총 2억5천만원)와의 팀 잔류 계약도 일찌감치 마무리 지은데다 히어로즈와의 결별을 선언한 정성훈과도 2009 FA시장에서 최대 큰손임을 과시했다. 이밖에 외야수 이영우도 연봉 2억1천만원에 원 소속팀 한화 잔류를 선언했다.

계약이 완료 되지 않은 선수는 홍성흔과 이해찬, 정성훈 3명. 이중 이해찬은 일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성훈은 LG와의 계약이 예상된다. 행선지가 불분명 한 선수는 원 소속팀 두산과의 협상에 실패한 홍성흔뿐이다.

특유의 파이팅으로 두산의 마스크를 역할을 자처했던 홍성흔이 팀 잔류를 선언할지, 아니면 타 팀으로의 이적을 선택할지 그의 선택이 2009 FA 대미를 장식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포스트 시즌 내일부터 킥오프

#### 울산-포항 6강 플레이오프

축구대표팀이 사우디 아라비아 원정에서 값진 승리로 올해를 마감한 가운데 프로축구는 본격적인 가을걷이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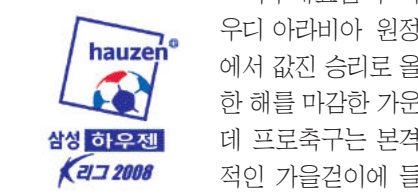
삼성하우젠 K-리그 2008 챔피언을 가릴 포스트시즌이 22일 오후 5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4위 울산 현대와 5위 포항 스틸러스 간 6강 플레이오프로 막을 연다.

포스트시즌의 문을 열 울산과 포항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두 차례 맞붙어 1승씩을 나누며 가졌다. 이튿날인 23일에는 오후 2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정규리그 3위 성남 일화와의 6위 전북 현대가 6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1, 2위 팀에는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3~6위는 사실상 순위가 큰 의미가 없다.

이점이라야 순위가 앞선 팀이 홈 경기를 치른다는 것 정도다.

리그와 달리 이제부터는 지면 바로 ‘시즌 마감’인 단판 승부라 매 경기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삼성하우젠 K-리그 2008 챔피언을 가릴 포스트시즌이 22일 오후 5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정규리그 4위 울산 현대와 5위 포항 스틸러스 간 6강 플레이오프로 막을 연다.

### 전남 드래곤즈 수석코치에 하석주 영입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내년 시즌을 대비해 경남FC의 하석주(40·사진) 코치를 새로운 수석코치로 영입했다.

전남은 20일 “김상호 코치가 올해 말 계약이 만료돼 하석주 코치와 수석코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 코치는 1991~2001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고 포항 스틸러스와 경남FC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지난 2006년 경남FC의 초대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과 함께 코칭스태프로 활동했던 하 코치는 “내년 시즌 박 감독을 잘 보필해 6강 플레이오프 진출과 FA컵 우승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꾸로 나는 슬램 덩크’ ‘림 로커’로 알려진 슬램 덩크. AFP가 찍은 올해의 스포츠 명장면으로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NBA 시범경기에서 밀워키 벅스의 한 선수가 선보였다. /연합뉴스

#### ‘장원삼 트레이드’ 오늘 발표

‘장원삼 파동’으로 광고를 거둬온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최종 발표를 하루 더 미뤘다. KBO는 20일 “신상우 총재가 21일 오전 9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장원삼 트레이드 승인 여부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O는 올해 초 히어로즈 구단 창단 과정에서 ‘5년간 구단 매각 금지 및 현금트레이드 시 KBO 사정을 승인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장원삼 트레이드는 지난 14일 이 같은 합의를 깨고 에이스 히어로즈 장원삼을 현금 30억원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나머지 6개 구단이 합의사항을 위배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해 KBO는 19일 긴급 이사회까지 소집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O는 이사회 직후 20일 오후 2시까지 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신상우 총재의 광고가 계속돼 하루 더 미루게 됐다. /연합뉴스

### 호남대, 고교 클럽 축구대회 개최

호남대는 오는 22일부터 12월6일까지 광산캠퍼스에서 고교 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 52개 고교생 팀이 참가하는 ‘실질적 광주·전남 고교야마추어 클럽 축구대회’는 호남대가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고교생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FC 침탄’ 등 광주지역 39개 팀과 ‘영양 춘보’ 등 전남지역 13개 팀이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

####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광주·전남 52개팀 참가

르게 된다. 대회 총상금은 1천만원이다.

호남대 관계자는 “전국대회 5회 우승, 전국 최초 축구학과 개설 등 전국적으로 ‘축구 사관학교’로 알려진 호남대가 지역민에 보답한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21일 (금)

▲08/09 대학장사씨름 (14:00·MBC ESPN)

▲08/09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vs 김호성>(16:50·SBS스포츠)

▲08/09 프로농구 <LG:KT&G>(18:50·SBS스포츠·MBC ESPN), <동부:SK>(18:45·XPORTS)

**대표: 성봉규** (영원동북로18-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총장 ·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 전 호남대학교 행정교육원 제5대 총원우총장 ·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 (주) 새마을부동산(주) 대표이사 겸 대표 · 전 전라남도 지부위원장 · 전 새마을부동산(주) 대표이사

**부동산**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건물, 매매가, 전세가

**주택**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건물, 매매가, 전세가

**상가**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건물, 매매가, 전세가

**농가**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건물, 매매가, 전세가

**아파트** (고려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지역 소재지, 인구, 면적, 건물, 매매가, 전세가

**해령법률경매**

T: 062)225-2665 H,P: 011-605-7777 위치: 법원정문앞

**금당부동산**

☎ (062)223-7400 ☎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인터시티나도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평가 70%이하**

● 금남로 단지 237 건물 1462 공사 1422 6년 일 부는 금남로 단지 237 건물 1462 공사 1422 6년 일 부는 금남로 단지 237 건물 1462 공사 1422 6년 일 부는

**매도·교환**

● 시골마을 123건 215평 2억 5천만 원에 매매 123건 215평 2억 5천만 원에 매매 123건 215평 2억 5천만 원에

**감평가이하**

● 차병원 병원 단지 305 건물 806 매도 41억 원에 매매 154 건물 750 전세 955천 원 1400

**WLB 웰빙공인중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자이1차 단지내상가 ☎ 062)575-8389 ☎ 010-4667-7749

**임대신속·맞춤형 임대료**

●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 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매매/임대 고수익과 안정성 보장**

● 양산GS 그린/자이 “단지내상가”

**1. 최소투자금액(저리융자금,보증금 포함)**

**2. 임대사업투자(연13% 이상 고수익)**

**3. 빠른 투자금 회수**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수록 고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임점안료된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 양산택지지구내 상가/단지 전문상담 ○

**다우공인중개사**

☎ 523-8114 ☎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 3천 월795만/매가 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용6억2천만/매가 13억5천만

**▶최고급 무인텔(직영)**

● 대2,057㎡/건2,248㎡/각실28/용15억/매가 28억원

**▶태양광발전소 및 전원주택지**

● 입28,200㎡/1,000KW 발전사업허가/매가 3억5천만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

● 입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현재 김나루 밭/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 (062)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